

가 각 간 갈 감 강 개 거 건 것 게 결 경 계 고 골 공 과 관 교 구  
국 군 그 근 길 까 나 난 남 내 너 년 노 농 는 늘 니 다 단 당 대  
데 도 동 되 된 두 드 들 디 따 때 또 라 란 램 래 러 레 려 력 련  
로 료 르 른 를 림 리 린 마 만 말 며 면 명 모 무 문 물 미 민 밋  
바 반 발 방 배 법 병 보 본 부 분 불 비 사 산 상 새 생 서 선 설  
성 세 소 속 수 술 스 습 시 식 신 실 심 아 안 앗 알 야 양 어 업  
없 었 에 여 역 연 였 영 예 오 와 요 용 우 운 울 원 위 유 육 으  
은 을 음 의 이 인 일 임 있 자 작 장 재 저 적 전 절 점 정 제 조  
종 주 중 증 지 직 질 집 찰 책 체 초 추 치 카 크 타 태 터 토 특  
파 포 프 피 하 학 한 할 합 해 향 험 현 형 호 화 환 활 회 후 히

**헤비 산돌고딕네오1 헤비**  
**엑스트라볼드 산돌고딕네오1 엑스트라볼드**  
**볼드 산돌고딕네오1 볼드**  
**세미볼드 산돌고딕네오1 세미볼드**  
**미디엄 산돌고딕네오1 미디엄**  
**레귤러 산돌고딕네오1 레귤러**  
**라이트 산돌고딕네오1 라이트**  
**울트라라이트 산돌고딕네오1 울트라라이트**  
**씬 산돌고딕네오1 씬**

“눈앞에 좋은 와인 한병과 두개의 잔이 있다. 하나는 호사스럽게 장식된 황금잔이고, 또 하나는 수수하고 투명한 유리잔이다. 아무거나 골라 와인을 따라보라. 어떤 잔을 고르느냐에 따라 와인에 대한 조예가 판가름 날 것이다. 와인을 모르는 자, 즉 와인의 색과 향과 맛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황금잔을 선택할지 모른다. 그러나 와인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자라면, 내용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투명한 유리잔을 선택할 것이다.”

이 은유를 창안한 비어트리스 워드(Beatrice Warde, 1900~1969)는 미국 출신의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겸 비평가였다. 남편과 함께 1925년에 유럽으로 건너온 그녀는, 영국의 중요한 타이포그래피 저널 <플러론(The Fleuron)>에 폴 부종(Paul Beaujon)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얻은 평판에 힘입어 1927년에는 <모노타입 레코더(Monotype Recorder)> 지의 편집장에 임명되었다. 그녀의 명쾌하고 재치 있는 비평은 남성 중심적인 영국 타이포그래피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Medium  
13 / 21pt

“눈앞에 좋은 와인 한병과 두개의 잔이 있다. 하나는 호사스럽게 장식된 황금잔이고, 또 하나는 수수하고 투명한 유리잔이다. 아무거나 골라 와인을 따라보라. 어떤 잔을 고르느냐에 따라 와인에 대한 조예가 판가름 날 것이다. 와인을 모르는 자, 즉 와인의 색과 향과 맛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황금잔을 선택할지 모른다. 그러나 와인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자라면, 내용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투명한 유리잔을 선택할 것이다.”

이 은유를 창안한 비어트리스 워드(Beatrice Warde, 1900~1969)는 미국 출신의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겸 비평가였다. 남편과 함께 1925년에 유럽으로 건너온 그녀는, 영국의 중요한 타이포그래피 저널 <플러론(The Fleuron)>에 폴 부종(Paul Beaujon)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얻은 평판에 힘입어 1927년에는 <모노타입 레코더(Monotype Recorder)> 지의 편집장에 임명되었다. 그녀의 명쾌하고 재치 있는 비평은 남성 중심적인 영국 타이포그래피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Medium  
8 / 13pt

“눈앞에 좋은 와인 한병과 두개의 잔이 있다. 하나는 호사스럽게 장식된 황금잔이고, 또 하나는 수수하고 투명한 유리잔이다. 아무거나 골라 와인을 따라보라. 어떤 잔을 고르느냐에 따라 와인에 대한 조예가 판가름 날 것이다. 와인을 모르는 자, 즉 와인의 색과 향과 맛에 관심이 없는 자라면,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황금잔을 선택할지 모른다. 그러나 와인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자라면, 내용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투명한 유리잔을 선택할 것이다.”

이 은유를 창안한 비어트리스 워드(Beatrice Warde, 1900~1969)는 미국 출신의 타이포그래피 역사가 겸 비평가였다. 남편과 함께 1925년에 유럽으로 건너온 그녀는, 영국의 중요한 타이포그래피 저널 <플러론(The Fleuron)>에 폴 부종(Paul Beaujon)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Medium  
21 / 34pt

# 비례와 균형 그리고 글자들의

아름다운 꽃이 찬란하게 피고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 마을에서 살고자하면

# 숫자아있는것에서

근대적 인쇄출판업은 그 태생부터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고, 인쇄된 서적이란 무엇보다도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상품이었다. 중세 필사본은 은둔의 수도원과 귀족의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지만, 구텐베르크 이후 인쇄업은 베네치아, 리옹, 안트베르펜 등 상업과 금융, 무역의 도시를 중심으로 번창해갔다.

학문의 중심인 파리, 종교서 출판이 활발한 로마,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정착했던 바젤에서도 인간 정신의 찬란한 유산들이 인쇄기의 뿔뿔거리는 소음 속에서 육신을 갖추고는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단, 이 역사 속의 한 교훈은, 콘텐츠의 생산이 지속력을 갖추지 못한 상업만의 도시에서는 번덕스러운 헤르메스를 제대로 잡아두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 있는 도시인 라이프치히는 학문과 상업이 동시에 발달한 책의 도시다. 콘텐츠의 생산력이 비옥한 그 토양에서 근대적 인쇄출판업은 그 태생부터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었고, 인쇄된 서적이란 무엇보다도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는 상품이었다. 중세 필사본은 은둔의 수도원과 귀족의

이국적인 분위기와 느리고 여유로운 문화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 한글타이포그래피의 발전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슬퍼할 일도 없고 기

**Bold**  
77 / 77pt

**Ultra Light**  
30 / 30pt

**Thin**  
125 / 125pt

**Regular**  
10 / 17pt

**Light**  
28 / 28pt

**Heavy**  
77 / 77pt

**Medium**  
47 / 47pt

산돌네오시리즈는 새로운 타이포그래피 환경에 맞게 **가로쓰기 전용**으로 설계되었으며 디지털 기기와 디스플레이 **기술에 최적화** 되도록 원도제작에서부터 응용 테스트까지 최신 환경을 고려해 제작했다. 우선 산돌고딕이 지니고 있던 **가로쓰기와 적정 자간**을 이어받아 **현대 타이포그래피가 요구하는 글자 폭에 일반고딕보다 비교적 왜소해 보였던 약점들을 보완했다**. 특정한 조절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미려한 조판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조판 조절값** 없이 사용해도 **자간, 자폭, 띄어쓰기가 최적화**되어 있으며 **합성글꼴**을 사용하지 않고도 세련된 정렬과 조화가 가능하다. **다양하고 정교한 편집**을 위해서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맞춰 세분화된 패밀리로 필요로 했다. 웨이트 변화에 의한 일차 패밀리를 넘어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확대된 개념의 패밀리가 구상**되었고, 한글 자소의 **조합구성에 변화**를 주어 안정적이고 클래식한 이미지와 젊고 리드미컬한 이미지에 어울리는 패밀리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웨이트 패밀리간에도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설계**해 기능성을 높였다. 본문용은 **가독성에 중점**을 두어 자소 간에도 또렷하게 구분되고, 문장을 이루었을 때도 **자연스러운 시각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였다. 제목용은 주목성에 중점을 두어 짧은 문장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시선을 잡아**꿀 수 있도록 했다.

산돌네오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가지이다.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용자의 참여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라는 점과 한글을 가장 중심에 두고 다른 문자 군과 조화를 이루어낸 최초의 한글 서체라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패밀리로 사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디지털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 최신 환경에 적용하기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글디자인 컨셉트에 맞춰 한자를 만들었고 라틴알파벳을 선택했다. 부가기능과 기호들도 한글을 위해 만들어졌고 한글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국적없이 떠돌아다니는 문자들을 접목하지 않았다.

네오시리즈

네오시리즈를 계획하면서 서체 개발 개념부터 바꿔 보고자 했다. 편집 및 분야별 디자이너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사용자 그룹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 불편한 점, 제안, 아이디어 등을 얻었다. 또한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한글서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결책을 공유했고 출시 직전의 산돌 네오시리즈에 대한 감수와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네오시리즈 프로젝트를 위한 전담연구 제작팀을 꾸려 운영했다. 다양한 사용자에게 맞춰 커스텀마이징이 가능하도록 서체 구성 자체를 각각의 모듈로 구분한 것 또한 산돌 네오시리즈의 큰 특징이다.